



복음기도신문은 복음과 기도의 증인들의 믿음의 고백과 열방의 뉴스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해석해 성도를 일깨우고 열방의 중보기도자로 세우기 위해 격주로 발행되는 신문입니다.

복음기도신문

한국어판 www.gnpnews.org
 영어판 english.gnpnews.org
 일어판 japan.gnpnews.org
 중어판 china.gnpnews.org

2010. 10. 3 창간

Gospel Prayer Newspaper

2022. 1. 23 ~ 2022. 2. 12 제260호

포토에세이



▲ 파키스탄과 인도 국경 와가보더(Wagah Border)에서. 제공: 백우현

우리가 이전에 추던 춤

오후 5시. 파키스탄과 인도 국경 와가보더에서 한 무리의 남자들이 춤을 춘다. 마치 축제처럼 펼쳐지는 두 나라의 국기 하강식. 기 싸움을 하며 현란하게 펼쳐지는 군인들의 행사가 시작되면, 라호르 국경에서 지켜보던 파키스탄 남자들이 춤을 추며 흥을 돋운다. 감정을 고조시키는 빠른 타악기 소리!

한껏 두 팔을 뻗어 올리고, 어깨를 들썩이며 대열을 지어 도는 남자들!
우리가 이전에 추던 춤은 세상을 기뻐하고 나를 기뻐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이들은 다른 춤을 춘다. 그것은 십자가 위에서 추는 춤, 나의 옛 생명을 죽음에 넘기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기뻐하는 춤이다. 피 흘리는 죽음을 기뻐하며 춤추는 것은 힘 들지만, 주님은 우리를 능히 춤추게 하신다. 그 춤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요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마태복음 16:24) [GPNEWS]

프랑스, 유명 정치학자의 가정 성폭행 사건 계기로 근친상간 불법화 추진

지난해 프랑스에서 명망이 높았던 정치학자의 의붓아들 성폭행 폭로를 계기로 최근 프랑스 정부가 근친상간을 전면 불법화하는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1일 더타임스가 보도했다. 헌법학자로 유명한 올리비에 뒤아멜(71)의 30여 년 전 10대 의붓아들들 여러 차례 성폭행했다는 폭로 이후, 그동안 프랑스에서 만연했던 근친상간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됐다. 이번 법 개정 논의는 프랑스 혁명기인 1791년 관련법이 폐지된 이래 231년 만의 일이다. 프랑스에서는 뒤아멜의 의붓아들 성폭행 폭로를 시작으로 그간 침묵을 강요당해 온 근친상간 피해자들의 잇따른 폭로에도 가해자를 처벌할 방법이 없어 근친상간이 큰 사회적 문제로 부상했다. 이에 프랑스 정치권은 18세 미만 친족과의 성관계를 금지하고 양자 간 나이 차가 5살 이상일 경우 성폭행으로 간주해 처벌하는 법을 최근 제정했으나,

이 법이 마치 18세 이상이면 근친상간이 허용되는 것처럼 보여 시민사회로부터 불완전한 입법이란 비판을 받아왔다. 프랑스 아동보호단체 '레파피옹'의 로랑 보이에 의장은 “부모와 자식 간의 성관계에는 심지어 자식이 성인일 때조차 언제나 일종의 지배력이 관여된다.”며 이 때문에 반드시 근친상간을 꼭 잡아 규제할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프랑스 정부는 당사자들은 모두 18세 이상이라고 해도 근친상간을 저지를 경우 가해자를 처벌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의붓아버지와 양녀, 의붓어머니와 양아들처럼 당사자 간에 혈연이 없을 경우에도 나이를 불문하고 처벌할 것인지와 관련해서 아직 내부적으로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와 별개로 사촌간 결혼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계속 허용된다. 프랑스에서는 프랑스 혁

명 당시 ‘양시영 레짐’(구체제)을 철폐하면서 기독교 도덕률에 기반한 형법 조항 상당수가 사라져 이때 근친상간 처벌법과 함께 신성모독, 동성애 처벌법도 폐지됐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 구(舊)체제를 비판하며 시민혁명의 물꼬를 튼 것으로 여겨져 온 1789년의 프랑스 혁명이 가져온 폐해가 전통적인 성윤리마저 폐기해버린 불완전한 시도였다는 평가가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선분은 이론에 따른 잘못된 결정이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원점으로 회복되는데 무려 300년 가까이 걸렸다. 전통 종교의 억압으로부터의 자유를 원했던 욕구가 결국 성적 욕망으로 향하게 되면서 근친상간, 동성애에 빠져버리게 된 프랑스의 영혼들에게, 죄로부터 돌이키는 회개와 십자가로 말미암은 생명의 회복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자. [GPNEWS]

마음의 눈을 밝히사 (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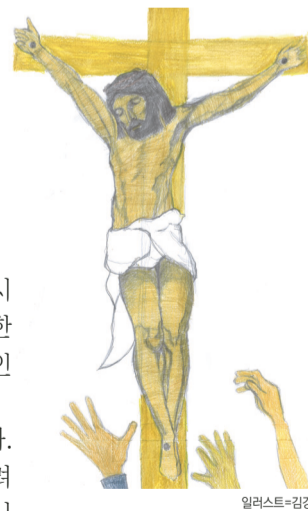
죄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

병의 위험을 모를 때는 병에 걸릴 만한 행동을 마음 놓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진단을 받았는데 당뇨 수치가 높고, 관리를 잘못하면 합병증으로 발을 절단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 태도가 확 바뀝니다. 의사의 지침에 따라 위험한 것을 피하고 절대 하지 않게 됩니다. 적을 알면 싸울 태세를 갖추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죄가 그렇습니다. 죄를 우리가 싸워야 할 적으로 정확

히 알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고 절제할 수 있습니다. 죄의 끔찍함이 자신에게 실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죄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죄는 나쁘고 지으면 안돼죠. 그래도 또 짓게 되면 어떻게 하죠?” 이런 태도는 뒷문을 열어놓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죄가 다가오기를 기다리니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죄인에게 내려지는 것은

모든 지독한 질병의 양성 판정을 받은 것보다 더 무서운 사형선고, 곧 영원한 지옥의 형벌입니다. 나병 환자라는 낙인만 찍혀도 이 세상에서 죽음을 경험합니다. 성경의 진리는 죄와 내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가 곧 나요, 나 곧 죄’라고 말합니다. 죄는 이렇게 심판을 받아야만 끝이 납니다. “그래도 나는 심각한 죄인은 아니에요.” 혹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선택할 수 있어요.”라고 말하고 싶은 사람

이 있습니까? 그러나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해도 죄인은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은 너무 분명합니다. 이렇게 나를 특별하게 보려고 하는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어머니 마한 역사의 숙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가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더듬어서 마지막 결론으로 알게 된 진리! “우리 죄,



일러스트=김경선

자아가 죽어야 되는군요!”라고 인정할 때, 주님은 “그래서 너희 ‘옛 사람’을 내 아들과 함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노라.”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GPNEWS] 복음을 영화롭게 하라 (김용의.규장.2017)에서 발췌

복음의 소리 316전화

복음이 뭔지 궁금하신가요?
 믿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연락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해답이 있습니다.

운영시간 10~22시
 상담시간 40분

장난 전화는 삼가주세요

1670-3160

중국, 기독교 웹사이트 방문자 정보 수집해 지하교인 핍박 근거 마련



▲ 중국에서 외세를 금지한다는 명목으로 종교적인 인터넷 콘텐츠를 규제하는 새 금지령이 오는 3월 1일부터 발효된다. 출처: 중국 국가종교사무국 웹페이지 캡처

한국순교자의소리(VOM)는 중국 정부가 3월 1일부터 발효하는 외국 단체의 온라인 종교 정보 서비스 운영에 대한 새로운 금지령이 사실상 중국 지하교인을 핍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VOM에 따르면, '인터넷 종교 정보 서비스 운영에 관한 대책'이라고 불리는 이 규정은 중국의 5개 정부 기관이 시행해야 할 36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외국 단체에 대한 언급은 사소한 내용 두 가지밖에 없다.

이에 대해 현숙 폴리 VOM 대표는 중국 공산당이 인터넷에서 기독교 웹사이트들과 기독교 콘텐츠를 차단한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사소하게 보이는 세부 조항인 20조가 사실상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20조는 '인터넷 종교 정보 방송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해당 플랫폼에 등록된 사용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사용자들의 실제 신앙 정

보를 확인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만약 기독교 웹사이트들이 모든 방문자의 이름과 신상 정보를 수집하고 확인해야 한다면, 이는 결국 공산당 당국자들이 자신들의 체제에 '위협하다'고 생각되는 기독교인을 알아내는 매우 쉬운 방법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폴리 대표는 "이는 2019년 저장성 샤오마이 기독교 서점 사건에서 목격한 사실"이라며 "순교자의소리 소식통에 따르면, 당시 중국 당국이 그 서점의 영수증을 다 조사하여 1만 명이 넘는 고객 명단을 확보했고, 중국 당국에 의해 투옥된 이른비언약교회 왕 이 목사가 저술한 기독교 서적을 구매한 혐의로 그 모든 고객들을 심문했다."고 말했다. 또 "만약 모든 기독교 웹사이트들이 모든 방문자의 목록을 만든다면, 중국 당국이 특정 웹사이트나 설교자를 지목하여 체제 전복적 극단주의 테러리스트라고 규정할 때마다, 심문 용의자 명단

을 자동적으로 중국 정부에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폴리 대표는 "이번 인터넷 콘텐츠 규제는 외국 단체가 아니라 중국 인터넷에서 종교에 대한 절대적인 통제권을 공산당에게 부여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면서 "여기에는 '누구든지 우리 편이 아니면 반대편'이라는 흑백논리 사고방식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고 말했다.

또 새로운 규정 제14조와 15조에는 모든 종교가 공산당과 공산당의 이익을 위해 단결해야 하며, 만약 그렇지 않다면 외세나 테러나 속임수 때문일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금지하고 처벌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규정은 인터넷 상의 종교적인 콘텐츠에 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콘텐츠가 공산당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거나 공산당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체제 전복, 극단주의, 광신, 이단, 미신, 사회주의 폄하로 간주된다는 의미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새 규정에 대해 중국 지하교인들은 두려워하거나 우려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폴리 대표는 "그분들(중국 지하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하셔서, 바로가 짙은 적게 주면서 벽들은 더 많이 만들게 했던 때와 똑 같게 여긴다."며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행하는 모든 일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을 축복하셨다."고 했다. [GPNEWS]



긴급한 열방의 상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열방의 교회, 다음세대, 창결하는 죄, 이주민 문제, 영적 전쟁 등의 관점에서 전 세계 언론과 통신원들을 통해 모아진 열방의 소식을 요약, 정리해서 제공합니다. <편집자>

파키스탄 기독교 남성, 휴대전화 문자로 신성모독 혐의... 사형 선고

파키스탄에서 휴대전화로 신성모독 문자를 보냈다는 혐의로 기독교인 남성 자파르 바티(58)가 사형선고를 받았다고 영국 크리스천투데이가 보도했다. 2012년 동네 사람의 고발로 기소돼 종신형을 선고받은 그는 졸곧 혐의를 부인하며 항소를 제기했지만 거부당했으며, 질병 중에도 수감 중에 있다.

질병과 목숨의 위협 가운데 있는 자파르 형제를 속히 자유케 해주십시오. 신성모독죄로 폭행당하거나 산 채로 불태워지는 일이 빈번한 파키스탄 성도들을 보호해주시고 믿음을 견고케 하셔서, 천국소망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또한 이 땅에서 악법을 없애주시길 기도합니다.

아프간 탈레반, 포스터로 히잡 착용 압박... 여성들 두려움 느껴

최근 아프가니스탄의 '권선징악부'가 수도 카불의 카페, 상점 등 곳곳에 여성의 히잡 착용을 압박하는 포스터를 부착했다고 8일 프랑스24가 AFP를 인용, 보도했다. 포스터에는 부르카를 착용한 여성 이미지와 "샤리아(이슬람 율법)에 따르면 무슬림 여성은 반드시 히잡을 착용해야 한다."는 글이 담겨 있다. 여성들은 이런 포스터에 상당한 두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성 인권에 불리하게 적용될 수밖에 없는 샤리아법으로 공포를 조장하는 탈레반에게 압제하고 위협하는 것이 아닌 생명과 번영을 주시는 하나님의 법을 알려 주십시오. 아프간의 영혼들이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 참 자유와 생명을 얻는 축복을 주시길 구합니다.

국회, 정당법 개정으로 16세 청소년까지 정당가입 확대

대한민국 국회가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나이를 현행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추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을 최근 의결했다고 12일 국회공보를 통해 밝혔다. 이에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제출하면 고1부터 정당에 가입해 활동할 수 있게 됐다. 일부 언론들은 3월 대선을 앞두고 청년층 표심을 의식해 여야가 의기투합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미래를 꿈꾸고 열심히 공부해야 할 청소년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해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는 위정자들을 돌이켜 주십시오. 국민을 위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는 참된 지도자와 정당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통치의 열쇠인 이 땅의 교회를 통해 나라를 회복시켜주시길 구합니다. [GPNEWS]

영 25개 여학교 협회 "트랜스젠더 학생 입학 거부"기로 결의

영국 잉글랜드와 웨일스에 있는 25개 여학교 협회인 '걸스데이 스쿨 트러스트(The Girls' Day School Trust, GST)'가 트랜스젠더 정체성을 가진 생물학적 남학생들의 입학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영국 크리스천투데이가 최근 전했다.

GST는 최근 성적체성 정책을 개정하면서 우리 학교들은 여학생을 위한 단일성별교육에 전념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의 입학은 예비 학생들의 출생증명서에 기록된 법적 성별에 기초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법적으로는 여성이지만 트랜스젠더나 난바이너리(남성도 여성도 아닌 제3의 성)로 확인된 학생들의 지원서는 신중하게 검토될 것"이라며 단일성별학교는 학교의 기풍이 여학생에게 맞춰져 있고, 교육적 접근도 여학생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여학생으로 식별되지

않은 트랜스젠더 학생들에게 문화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GST 학교들은 학생의 출생증명서에 기록된 성별이 아닌 성적체성에 기반한 입학 정책은 법적으로 단일성별학교로서 GST의 지위를 위태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남성인 학생들의 입학 원서를 받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이러한 정책이 평등법을 위반하지 않고 생물학적 성과 관련된 면제 조항에 기초해 단일 성별 입학 정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평등법의 예외 조항에 대한 법적 해석을 계속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7년 영국에서 성적체성 문제가 부각되고, 성적체성 클리닉과 관련된 아동들의 수가 증가할 무렵, "학교가 얼마나 '트랜스젠더 친화적'인지에 따라 등급을 매

기겠다."는 가이드가 발표됐다. 이에 런던 남부에 있는 사립학교인 제임스 앨런 여학교의 샬리 앤 황(Sally-Anne Huang) 교장은 당시 자신의 성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학생들에게 잠재적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더 이상 그들을 '소녀들(girls)'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그러나 일부 시사평론가들은 젊은이들에게 트랜스젠더 이슈를 떠넘기는 것은 그들을 혼란스럽게 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2017년 크리스 맥거번 전 교육부 자문의원은 "아이들이 아이들로 남겨져야 할 나이에, 그들에게 성별에 의문을 품도록 부추기면서 그것으로 경력을 쌓는 사람들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교사들이 이런 문제를 제기할 때 아이들은 혼란스러워하거나 불행해지고 정신적 충격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GPNEWS]

느헤미야52기도 참여교회 및 단체

2022년 1월 24일 ~ 2022년 2월 12일

1월 24일 ~ 1월 29일 ▶ 전남 신안 / 열방선교센터(강**) 010-7364-9982, 1.24(10~18시) ▶ 경기 김포 / 꿈꾸는교회(강**) 010-4128-0448, 1.24~28(11~17시) ▶ 경기 군포 / 예수생명교회(권**) 010-2735-4869, 1.25(11~13시) ▶ 경기 수원 / 주님의교회(조**) 010-5417-3399, 1.25, 27~29(19~22시) ▶ 전남 신안 / 중부교회(강**) 010-5186-0091, 1.28(13~17시) ▶ 전남 순천 / 우리동네작은교회(강**) 010-7129-7224, 1.28(10시)~29(10시) ▶ 서울 광진 / 한국중앙교회(김**) 010-4013-5346

1월 31일 ~ 2월 5일 1.31(10~18시) ▶ 경기 김포 / 꿈꾸는교회(강**) 010-4128-0448, 1.31~2.4(11~17시) ▶ 경기 군포 / 예수생명교회(권**) 010-2735-4869, 2.1(11~13시) ▶ 경기 수원 / 주님의교회(조**) 010-5417-9933, 2.1, 3~5(19~22시) ▶ 전남 신안 / 중부교회(강**) 010-5186-0091, 2.4(13~17시) ▶ 전남 순천 / 우리동네작은교회(강**) 010-7129-7224, 2.4(12시)~5(12시) ▶ 대구 중구 / 서천교회(권**) 010-9275-7843, 그 외 1교회 진행중.

2월 7일 ~ 2월 12일 2.7(0~24시) ▶ 울산 중구 / 태화교회(박**) 010-9326-7767, 2.7~11(11~17시) ▶ 경기 군포 / 예수생명교회(권**) 010-2735-4869, 2.7~12(10~20시) ▶ 서울 광진 / 빛과소금교회(권**) 010-7754-1726, 2.8, 10~12(19~22시) ▶ 전남 신안 / 중부교회(강**) 010-5186-0091, 2.10(0~24시) ▶ 전북 전주 / 사랑하는교회(이**) 010-7709-0691, 2.11~12(05~17시) ▶ 전남 남원 / 은혜의교회(김**) 010-3106-3632, 2.12(09~18시) ▶ 경남 진주 / 예수교회(윤**) 010-7625-6004, 그 외 4교회 진행중.

* 더 많은 정보는 기도24365홈페이지(www.prayer24365.org)를 참고해주세요. 느헤미야52기도에 함께 하기를 원하는 분은 사전에 연락하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52기도 문의 ☎ 010-8267-4365)

기획 | 베트남 선교 이야기

한국과 베트남을 이은 할머니의 천국환송예배

지난 연말 한국과 베트남을 오가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던 한 베트남 할머니의 소천 소식이 베트남 선교와 관련된 성도들의 관심을 모았다. 코로나로 조문객도 없이 조촐하게 치러지리라 예상됐던 이 할머니의 죽음은 그의 사랑과 섬김을 받고 성장한 베트남 교회의 참여로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천국환송예배로 이어졌다. 수십 년에 걸쳐 다양한 만남을 통해 이어져온 베트남 선교 이야기를 본지 통신원이 정리했다. <편집자>

이야기는 6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53년 2월 6일 한국이 베트남전쟁에 참여하던 시절, 맹호부대 활동 지역에서 예쁜 여자가 이 투이(가명)가 태어났습니다. 투이가 태어난 곳은 전쟁이 아니면 시끄러울 것 없는 가난한 시골마을이었습니다.

혼란한 전시 상황에 성장한 투이는 간단한 의료 교육을 받고 병원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치열하던 1967년 어느 날, 베트남 전에 참전한 한국 청년이 이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왔습니다.

투이의 친절한 치료로 무좀을 깨끗하게 치료할 수 있었던 한국 청년은 투이의 집을 방문할 정도로 가까워졌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투이의 아버지는 조흔 풍습이 있던 베트남 그리고 전쟁으로 미래를 알 수 없는 상황에 당시 문화가 비슷한 한국 청년을 사위로 맞고 싶어했습니다. 두 사람의 혼담이 오갔지만, 한국 청년의 부모가 완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외국인 며느리는 안된다. 네가 그곳에 결혼하러 갔느냐. 복무 기간 끝나면 바로 나와라.”

청년은 아쉬운 추억만 남기고 이듬해인 1968년에 귀국하고, 두 사람은 각기 다른 길로 걸어갔습니다.

투이는 1975년 전쟁이 끝나기 전에 결혼하여 이미 자식 셋을 낳았습니다. 투이가 살던 곳은 패전한 지역으로 젊은 과부들이 많았습니다. 남편을 재력 있는 이웃 여자에게 빼긴 투이는 홀로 부모를 봉양하고 자식을 기르며 길거리 장사로 하루하루 연명했습니다. 2000년 무렵, 투이의 큰 아들은 이발가위만 들고 길거리 이발사로 어머니 생계를 돕기 시작했고 다른 두 자식들도 변변찮은 삶을 살 정도로 가난했습니다.

베트남 참전군인의 애뜻한 사랑

투이의 첫사랑이었던 한국 청년 한병국(가명)이 베트남에 참전한 것은 그의 삶에서 전혀 계획에 없던 일이었습니다. 대전 출신으로 교육대학을 졸업한 병국은 인천의 한 섬에 있는 국민학교 분교 교사



▲ 베트남 교회 성도들. 제공: 본지 통신원

로 발령받았습니다. 그곳에서 호랑이 선생님이 불리던 병국의 가르침으로 학생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했습니다. 덕분에 그의 학생들은 두각을 드러내고 각종 경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발휘했습니다. 세상은 그를 칭찬했지만 그의 학생들은 병국 선생의 그림자만 보여도 숨어 버렸습니다. 마음이 외로웠던 병국은 도망치듯 탈격 군에 입대했습니다.

군에서 어려움을 겪던 병국은 또 다시 도피하듯 월남 파병을 자원했습니다. 월남에 도착해 시골에서 민가에 거주하며, 주민 동향과 민심 탐지업무를 맡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건달이 걸어온 싸움을 이기며 병국은 잘생기고 힘 좋은 외국 청년으로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 무렵 청년 병국이 현지 마을의 병원에 가게 됐고 그곳에서 투이 자매를 만나고 헤어지게 된 것입니다.

1975년 전쟁이 끝나고 공산화된 베트남은 이제 병국의 마음에서 사라져 갔습니다. 그리고 1976년 병국도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러나 사회활동을 좋아하던 병국의 아내는 가정 살림이 뒷전이었고, 자녀들은 방치되기도 했습니다. 세상에서는 교사로서 인기와 실력을 인정받았으나 가정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사회적 위신도 있어서 이혼을 결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슬픔과 외로움에 시달리던 병국은 누군가의 전도로 교회에 나가게 되었고, 기도원에 들어가 울며 기도하던 중 인생의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사람의 인기와 칭찬은 정말 허무하구나!”

지옥과 천국이 있다는 것을 처음 들으며 자기 삶이 지옥이고 죽으면 진짜 지옥에 간다는 것과 그러나 천국에 갈 길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저럭 잘사는 인생인 줄 알았던 자신이 죄인이라는 자각과 천국의 실체가 믿어지면서 그의 삶이 극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때부터 여의도순복음교회의 전

도 신문을 들고 길거리와 학교, 병원을 찾아다녔습니다. 지옥 같은 자기 삶을 고백하며 구원의 길에 대해 전했습니다. 무섭게 했던 제자들을 사랑하기 시작했고 학교 교실에서 찬양으로 주님을 높였습니다. 어느 날 작은 사고로 입원한 제자의 병문안을 갔다가 기도하고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같은 병실의 한 청년 여인이 병국 선생에게 말했습니다.

“여보시오. 기도하러 왔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안 보입니까. 나도 기도해주고 가시오.” 병국은 여인의 사연을 듣고 치유 기도를 해주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잊었습니다.

은혜는 은혜를 낳고

이제 이야기는 병국 선생의 기도를 받은 또 다른 한 여인에게로 이어집니다. 그녀는 간이 나빠 복수가 차고 배 안의 물을 빼기 위해 입원해 있던 중이었습니다. 간경화가 많이 진행돼 자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에 대한 강한 집념을 보이던 그녀는 용기를 내어 병국 선생에게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기도를 받은 이후 그녀는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생기고, 그동안 여러 이웃과 친척들이 권하던 오산리기도원에 가볼 마음이 생겼습니다. 기도원에서 이틀간 금식기도하며 주님께 매달렸습니다.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몸 안의 암덩어리 같은 세포가 떨어져 나가는 일이 벌어졌고, 병원은 그녀의 간경화가 완치됐다는 믿을 수 없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여인은 이런 간증을 병국 선생에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 부천 복사골 버스정류장에서 차를 기다리던 여인은 인근 학교에서 들려오는 찬양소리를 듣고, 교실을 찾아가게 됩니다. 바로 그곳에서 여인은 교사로 근무하던 병국 선생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녀는 자신보다 나이 어린 병국 선생을 인생의 스승으로 여겼습니다. 그녀의 치유는 어머니의 회심과 치유를

위해 간절히 기도한 그 아들의 기도응답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치유 받은 그녀의 아들인 필자는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인도차이나 반도를 대상으로 사역하는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런 인연으로 알게 된 병국 선생은 필자에게 월남전 참전 때의 추억을 이야기했습니다. 필자는 그 애뜻한 사연을 베트남에 만난 찌엣(가명) 형제에게 전했습니다. 라이파이한(한국계 베트남인)으로 1972년생인 그는 이야기의 주인공들이 남겨려 여겨지지 않아, 병국 선생의 첫사랑 투이를 찾아나섰습니다.

찌엣 형제는 맹호부대의 주둔지에서 비슷한 사연을 가진 여인들을 수소문했습니다. 인기 있던 청년 병국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병국의 첫사랑이자 중년이 된 투이를 찾아냈습니다. 찌엣은 2001년 투이를 한국 땅에 갈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미 많은 세월이 흘러 초로의 중년이 된 병국과 투이는 하나님의 섭리로 34년만에 재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베트남과 한국에서 두 번의 결혼식을 올리게 됐습니다. 기적 같은 과정을 거친 이 행복한 가정의 이야기는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가는 것처럼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34년만에 이뤄진 재회

투이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베트남 고향을 방문하고, 또 현지의 불쌍한 교회와 성도들의 이야기를 한국에 전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미국과 호주 등에 살고 있는 베트남 교포들이 이들을 통해 도움의 손길을 베풀기 시

음을 나누는데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또 찌엣은 이들의 심부름꾼을 자처하며, 행동대원으로서 활동하며 베트남과 한국의 크고 작은 많은 일을 했습니다. 어느새 중년이 된 찌엣은 산전수전을 겪으며, 한국과 베트남 사이의 각종 잡범 사건까지 경찰서에 다니면서 돕는 해결사가 되었습니다. 각자 삶은 달랐지만 필요할 때마다 서로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는 협력자가 된 것입니다.

병국 할아버지도 어느덧 80세를 맞았고, 4년 전에는 갑작스럽게 위암, 간암, 폐암 3기 중병선고를 받았습니다. 몇 달 남지 않았다는 시한부생명을 판정받고 퇴원한 병국 할아버지는 집에서 기도와 찬양에 전념하며 무사히 회복되었습니다.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던 투이 할머니는 수시로 병원에 다니는 상황이었습니다.

지난 연말 12월 27일, 투이 할머니는 일반 검진을 받으러 병원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조수석에 앉아 있던 투이 할머니의 고개가 갑자기 툭 떨어졌습니다. 운전하던 병국 할아버지는 비상등을 켜고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이미 사망한 뒤였습니다. 코로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잠시 격리 대기하던 할아버지로부터 필자는 사망 소식을 전달받았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일시 귀국해 지방에 있던 필자는 베트남 언어 조력자가 사라져 투이 할머니의 장례식이 쓸쓸하게 진행될 것으로 여겨, 급히 서울의 장례식장으로 달려왔습니다. 필자는 서울에 올라오는 길에 투이 할머니의 소천 소



▲ 서민들의 주요 교통수단인 오토바이로 이동 중인 베트남인들. 제공: 본지 통신원

작했습니다. 그렇게 베트남 성도들을 물심양면으로 돕고, 한국교회에서 간증하다 보니 그 가정의 배경을 아는 사람들은 이들을 통해 여러 나라의 베트남 디아스포라들을 도왔습니다.

늦은 나이에 만나 언어 소통이 어려운 병국 선생과 투이 여사를 위해 필자는 결혼한 이후까지 연애편지를 번역하며 두 사람이 마

식을 SNS로 지인들에게 알렸고, 그녀의 소식은 세계 곳곳 베트남 그리스도인들에게 알려졌습니다.

필자가 장례식장에 들어섰을 때, 베트남 출신의 여전도사님이 이미 도착해 있었고, 페이스북 소식으로 이미 베트남 여러 곳에 할머니의 빈소가 준비되어 있음을 알았습니다. 페이스북 화면과 현장 사진을 부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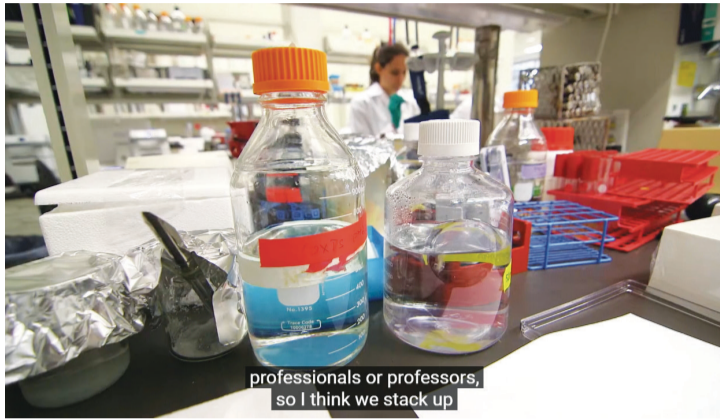
(4면에 계속)

과학자들, 연구 보조금 잃을까봐 진화론 지지

본지는 창조론 전문가인 미국 켄트 호빈드 박사의 창조론 강의를 요약, 소개한다. 호빈드 박사의 강의는 성경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흥미롭게 설명하며, 진화론이 거짓 믿음 체계임을 명쾌하게 밝히고 있다. <편집자>

한 러시아 천문학자는 미국 대학에서 강의할 때 ‘하나님이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두 가지 가능성 모두 두렵다고 했다. 맞는 말이다. 만일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우리는 그가 누구신지와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아내서 그의 말대로 해야 한다. 만일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큰 곤경에 처하게 된다. 우주는 시속 6만 6000마일로 돌아가고 있는데 아무도 그것을 책임지지 않기 때문이다.

프랑스 생물학자인 장 로스탄드는 “진화 변형론은 어른들을 위한 동화이며, 과학의 진보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쓸모없다.”고 했다.



▲ 미국의 한 대학교 연구소. 출처: 유튜브 채널 UAlbertaScience 캡처

그러면서 “진화론은 그것의 제사장들도 더 이상 믿지 않으면서 사람들에게 내세우는 일종의 신조”라고 말했다.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진화론을 믿지 않지만 일자리나 연구 보조금을 잃을까봐 진화론을 포기하기 두려워한다. 또는 동료집단으로부터 받는 사회적 압력을 두려워한다. 직업이 대학교수라서 어쩔 수 없이 여태껏 다루었던 거짓말들을 아이들에게 가르친다.

영국의 저널리스트 말콤 머그릿지는 “미래의 역사책에서 진화론이 가장 큰 농담거리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사탄은 거짓말쟁이다. 그리고 이 이론의 모든 것들이 거짓말에 바탕을 두고 있다. 심지어 미국 원자력위원회의 생리학자 테오도르 N 타미시안은 “진화론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대단한 사기꾼들이고 우리에게는 이 진화론을 뒷받침할 사실이 조금도 없다.”고 말했다.

진화론을 믿는 이유... 배운 것이 그것밖에 없어서

사람들은 왜 진화론을 믿는가? 어떤 사람들은 그것밖에 배운 것이 없기 때문이다. 한 번은 러시아의 공립학교에서 강연을 했다. 400명이 앉을 수 있는 공간에 700명의 고등학생들이 들어와 두 시간 동안의 강연을 끝날 때까지 조용히 들었다. 강연을 시작하기 전 교장 선생님에게 물었다. “저는 기독교 인입니다. 아이들에게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천국에 가는지에 대해 말해도 됩니까?”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물론이죠. 이 아이들은 기독교에 대해 듣는 것을 좋아할 겁니다. 그런 것은 한 번도 들어 본 적이 없으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밖에 배운 게 없어서 믿고,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직업이 달려 있어서 믿고,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대답해야 할 하나님이 없기를 바라고 때문에 믿는다. 이에 로마서는 “그들이 마음

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라고 말한다(롬 1:28). 또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은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라고 말한다. 누구든 자기가 46억 년 전에 바위에서 왔다고 믿으려면 강하게 미혹되어야 한다.

어떤 분이 자기 딸의 선생님에게 받은 전화 통화 내용을 이야기해 준 적이 있다. “당신의 초등학교 2학년 딸은 내가 진화론을 가르칠 때마다 제동을 겁니다. 그래서 당신의 딸이 반을 떠날 때까지 올해는 진화론을 가르치는 것을 건너 뛰려고 합니다.” 나는 무척 기뻐했다. 그러나 2학년짜리를 전장에 내보내는 것이 안타까웠다. 이것은 아이들이 아니라 부모들이 싸워야 할 싸움이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은 거슬리게 한다. 소금은 부패로부터 보존하는 역할을 한다. 기독교인들이 세상을 보존해야 한다. [GPNEWS]

<베트남 선교 이야기 3면에 이어>

무명한 자 같은 유명한 자의 장례식

와 함께 추가로 올렸습니다. 국내의 베트남 교회 사역자들도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로 이동이 힘든 연말연시 분위기여서 조문객이 적을 것으로 여겨 장례식장에서 가장 작은 방을 예약했는데, 적지 않은 조문객이 몰려왔습니다. 국내의 베트남 선교 한국인, 베트남인 사역자들이 모여 흠뻑 젖던 정보들을 모으니 성대한 천국환송잔치가 되었습니다.

20여 년 전에 베트남에서 한국에 신학생으로 유학왔던 사람들은 박사학위를 가진 담임목회자가 되었고, 한국인의 베트남 교회도 크지는 않으나 나름대로 자리잡은 상태였습니다. 2001년 무렵 1회 베트남인 전국수련회에 참석해 헌신하고 복음 들고 귀국했던 근로자들도 각종 핍박에서 살아남아 인가받은 교회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필자와 투이 할머니를 함께 알고 있는 베트남 시골 구석의 여목회자와 한국에 천국환송잔치에 모인 사람들이 화상 통화를 합니다.

“뭉람, 뭉람”(아주 기쁘다. 아주 기쁘다)

사연 많은 한 베트남 할머니의 장례를 통해 현장에서 살아남아 교회를 세운 사람들의 반가운 만

남이 이뤄졌습니다. 이들은 근로자에서 사역자로 성장한 서로의 모습을 보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훈련시켜 파송한 사람들도 여기저기 여호와 너의 밭을 흔드는 것을 보며, 그동안의 수고와 기도가 헛되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기쁨의 순간을 바라보며 보이지 않는 손길을 내밀었던 필자 역시 헛된 수고 같았던 시간이 기쁨을 잉태하는 시간이었음을 확인하며 함께 기뻐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화장장은 다소 분주합니다. 일반 사망은 오후 4시 반까지만 받고 그 이후 시간에 코로나 사망자를 받기에 화장장은 쉴 틈이 없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화장 순서 때문에 불가피하게 4일장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장례식장에 참석한 사람들은 그녀의 소천에 대해 ‘그런 복이 어찌 다시 있겠느냐’고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그의 꿈 많던 소녀 시절은 바람과 함께 사라졌으나, 인생을 깨달은 한 청년의 기도 응답이 있어 기적처럼 34년 전의 추억이 현실로甦겼습니다.

그들의 행복한 간증은 한국과 베트남 사회를 울렸습니다. 그러다가 몸이 아프기 시작할 때 오랜 고통 없이 숨이 멎었고, 지난해 30일 아침에 뱃가루만 흔적으



▲ 빈소에 차려진 베트남 할머니의 영정사진. 제공: 본지 통신원

로 남기고 천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녀의 남편도 소천하면 국립묘지 납골당에 같이 있게 되겠지요. 지금 시대는 이전처럼 시끄럽고 화려한 이별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벽제 화장장에서 생면부지의 1964년생, 1974년생 무연고자의 화장도 같은 날 진행되었습니다. 화장 이후 병에 든 하얀 뺨가루를 받아든 가족들의 통곡만 잠시 사진과 함께 있을 뿐입니다. 그들은 곧 자기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이별할 시간도 없이 순식간에, 아침 안개처럼 사라지는 인생들이었습니다.

두려움과 아쉬움으로 누구는 기억하고 추모해주는 사람도 없이 생을 떠나지만, 투이 할머니 주위에는 참석하지 못한 분들의 추모 및 전도 특별예배가 진행되었습니다. 또 눈물 흘리며 보내오는 사진들을 정리하고 번역하려고 손 쉴 틈 없는 즐거운 천국

환송잔치 자리를 만들어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던 사람의 흔적을 지우고 남은 인생을 살 사람들을 위하여 유가족 옆에 머물며 그 유업에 동참합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나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대 무엇을 가릴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였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빌립보서 1:21~24) [GPNEWS]

*현재 생존자들의 활동을 고려해 등장인물의 이름을 가명으로 처리했습니다. 유가족과 지인의 사역과 삶을 응원합니다.

복음의 능력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 '회개'

지금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회개'이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일이 수포로 돌아간다. 회개가 없으면 당신의 모든 종교적 행위들은 무의미하다. 종교의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인데 회개가 없으면 그 단계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이다(롬 8:8). 당신의 종교적 봉사가 겉보기에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회개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말 1:10).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짐승을 잡아서 제사하는 것은 살인과 다름없고 그의 기도는 가증한 숨결을 내뿜는 것과 다를 바 없다(사 66:3). 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자기의 생활을 고치고 기도와 구제를 하면 모든 것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착각하지 말라! 마음이 거룩해지지 않으면 겉으로 드러난 행위들은 무용지물이다. [GPNEWS]

돌이켜 회개하라 (조셉 얼라인)에서 발췌

나눔&나눔 삶의 나눔으로 되새겨 보는 하나님의 은혜

“코로나 팬데믹의 충격, 기도와 예배의 회복만이 살 길입니다”



© 복음기도신문

기도로 순종하는 최상훈 목사(화양감리교회)

- 코로나 팬데믹으로 예배드리는데 제한이 많아 어려움이 있었는데 텐데 화양감리교회는 어떻게 지내오셨는지 궁금합니다.

“작년 1월 20명 이하로 예배를 드려야 할 때,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기도하던 중 한 명이라도 함께 예배를 드려야겠다는 마음으로 방역수칙을 지켜가며 9부 예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아침 7시에 시작해 마지막 예배는 저녁 8시 30분에 끝나는 일정이었어요. 9번의 설교가 말처럼 쉽지는 않았어요. 오후 시간이 되자 너무 힘이 들어 끝까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마지막 9부 예배를 마치고 축도할 때 눈물이 나더군요. 이렇게 드러진 예배여서 그런지 함께 예배드리던 모든 성도들이 울면서 감격하며 주님을 찬양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주님이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 놀랍군요. 예배에 대한 사모함으로 하루에 설교를 9번이나 하셨군요. 그만큼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 느껴집니다.

“코로나라고 해서 교회에서 예배와 기도가 중단된 적은 없었어요. 예배 전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고, 찬양팀 연습 전에도 기도하죠. 간단하게 기도하고 연습하자는 건 없어요. 늘 1시간씩 기도해요.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 저희는 기도통장과 성경통독 통장을 만들어

- 놀랍군요. 요즘 같은 시대에 그렇게 단순하게 말씀과 기도로 순종하고 있다고 하시니 큰 격려와 함께 도전이 됩니다. 청년 성도들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예배에 대한 사모함으로 하루 9부 예배 드리기도

“제가 7년 전에 이 교회에 부임했는데, 당시에는 청년들이 별로 없었어요. 첫날 청년예배에 참석하니 예배인원 전부가 18명이었어요. 예배시간이 다 되었는데도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고, 말씀에 대한 간절함과 사모함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날 청년예배를 드리고 자정까지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도 있어 청년부를 젊은이교회로 독립시키기로 했어요. 그리고 재정지원을 중단했어요. 처음에는 청년들이 당황하고 불평도 있었지만, 담임목사의 진심이 전달되면서 청년들 스스로 교회를 세워가는 법을 찾아가더군요. 그 이후 젊은이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했어요. 지금은 800명 정도 출석하고 있어요.”

- 놀라운 성장이군요. 지금 교회의 살아 있는 간증을 더 듣고 싶지만 조금 뒤에 듣기로 하고, 그런 독심과 결단을 하기까지 주님이 목사님을 이끌어오신 시간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먼저 목사님이 주님을 만나게 되신 과정이 궁금합니다.

“저는 평범하지 않은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아버지는 공주에서 개척 목회를 하시면서 끼니를 먹

었어요. 그렇게 2년을 지내다 다시 부모님과 함께 살게 됐고, 서울 신림동 달동네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서울로 오게 됐어요.”

- 남다른 어린 시절을 보내셨군요. 서울에서는 어떠셨나요?

“학교 끝나면 갈 곳이 마땅치 않았고 움막 같은 집에 있는 것보다 교회 예배당에 있는 것이 행복하고 좋았어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교회에 들러서 기도하고 집에 갔어요. 짧게는 하루 1시간씩 기도했고 점점 기도의 양이 많아져 하루에 3시간, 4시간씩 기도하는 날도 적지 않았어요. 주님께 무언가 드리고 싶은데 가난한 형편에 드릴 것이 없어서 새벽에 신문 배달과 우유 배달, 겨울엔 찜쌀떡 장사를 하며 번돈으로 헌금을 정성껏 드렸어요.”

중고등학교 시절 하루에 3~4시간 기도

- 청소년이 그렇게 많이 기도를 했다는 게 놀라운데요.

“기도가 쌓이면 신기하게도 능력을 부여하신다는 사실을 점차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피아노학원에 너무 다니고 싶었지만 집안이 가난해서 엄두도 내지 못했어요. 어머니가 개척교회 반주할 사람이 없어서 피아노학원에 다니셨어요. 그때 어머니가 학원에서 가져오신 바이엘 교본을 놓고 기도한 다음 무조건 피아노를 쳤는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 반주를 하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학교 합창단 반주, 군대에서 성가대 반주도 했어요. 이후 여러 상황들을 거치며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깨달아가면서, 쌓여진 기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생겼어요. 그러다 큰 사고를 경험했어요.”

최 목사는 그동안 짬짬히 연주한 곡들을 유튜브에 올렸다. 실제 확인해 보니 파도치는 바닷가 배경을 바탕으로 잔잔한 피아노 동영상 등의 조회수가 수천 회에 달했다.

- 그런데, 어떤 사고였나요?

“1994년 막내 동생의 입대를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었는데 하나님이 “상훈아, 차에서 내려서 버스를 타고 가거라.”라는 마음을 강하게 주셨어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가족들에게 둘러대고 차에서 내려 홀로 버스를 타고 왔어요. 그날 저녁 가족이 탄 승용차가 고속도로에서 오른쪽 조수석 쪽으로 상대차와

충돌했다는 것을 집에 도착한 이후에 알았어요. 차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구겨졌고, 가족들은 모두 중상을 입었어요. 만약 그때 제가 오른쪽 조수석에 타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건이 훗날 선교사로 결단하는 결정적 계기가 됐어요.”

-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군요. 그 이후엔 어떻게 되셨죠?

“1989년 서울 감신대에 입학했는데, 들어가자마자 신입생 등록금 인상 문제로 학내가 시끄러웠고, 제가 1학기 과대표를 맡으면서 자연스레 등록금 투쟁공동위원장을 맡게 됐어요. 한 학기 내내 학내투쟁에 전념하느라 기도생활과 영성훈련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당시는 5공 청문회, 전교조 출범 등 사회적 이슈가 많았던 때여서, 나름 책임감을 느끼고 학생회장에 출마했는데 40여 표 차로 낙선했어요. 당연히 당선될 줄 알았는데 떨어져서 충격을 받고 학교 웰치채플에 가서 멍하니 혼자 앉아 있다가 문득 중고등학교 시절 매일 기도했던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어머니의 모습도 오버랩되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동안 여러 가지 생각과 죄송함 때문에 하염없이 울다가, 휴지를 찾으려고 가방 안을 뒤지는데 예수전도단의 한 간사님이 준 봉투를 발견했어요. 살아가면서 힘들 때 열어보라고 하셨던 거였어요.”

대학교 학생회장 낙마 계기로 신앙 회복

- 봉투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었나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는데, 붉은 천 조각 하나와 오래된 못 하나가 있었어요. 계속 쳐다보다가 그 의미가 다가왔어요. 어려운 순간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박혔던 못을 기억하라고 주신 선물이었어요. 그 순간 주님이 나와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이 강하게 느껴지면서 감사의 고백이 나왔어요. 이후에 입대를 결심했어요. 이왕이면 군복으로 가고 싶어 시험도 보고 설교도 합격했는데, 결국 떨어졌어요. 학생운동경력 때문이었죠. 그래서 군종병이나 군대교회에서 성가대 지휘나 반주자로 쓰임 받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가게 된 곳이 공병대였어요. 제 보직

은 공병대 작업병이었어요. 종일 콘크리트를 만드는, 소위 공구리 작업을 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삽질만 하면서 손에 굳은살이 배기도록 자갈을 날렸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군종병에 배치해주지 않고, 작업병을 하게 하셔서 고생하게 하시나!’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공병대에서 작업병으로 고생하게 하신 이유는 엄청난 은혜이자 배려라는 걸 나중에야 깨닫게 됐어요.”

- 하나님의 배려가 어떤 것이었는지 궁금해요.

“제대하고 감신대를 졸업한 후 아프리카 우간다, 케냐 선교사로 갔는데, 그곳 원주민 마을에 제대로 콘크리트 건물을 지을 줄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이미 저를 공병대 작업병으로 보내셔서 건축의 전문가가 되게 하셨잖아요. 그 기술로 원주민 마을에 교회를 7개나 세울 수 있었어요. 이 은혜를 깨달은 후 하나님 앞에 털썩 무릎 꿇고 감사의 기도를 올릴 수밖에 없었어요. 건축방법을 전수받은 원주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영혼 구원의 역사도 일어났고, 하나님의 자녀에겐 결코 우연이 없다는 것을 확신하게 됐어요.”

공병대 경험이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경험

- 아프리카 선교는 어떠셨어요?

“처음 아프리카 선교사역에 뛰어 들 때 7년을 서원하기로 하나님과 약속했어요. 그런데 6년째 되던 해 아내가 임신 중에 그만 풍토병에 걸렸어요. 여러 병원에 다녔지만 잘 낫지 않았고, 태아도 위험한 상태였어요. ‘주님, 지난 6년 동안 교회와 학교도 세우고 최선을 다해서 선교했습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1년이 남아 있지만 임신한 아내의 치료를 위해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일주일간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는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상훈아, 너는 남아서 너의 사명의 자리를 지켜라.’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순종하기가 참 어려웠지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저는 1년 동안 선교지에 남고, 아내는 치료를 위해 한국으로 보냈어요.”

- 쉽지 않은 결정이었네요.

“첫 아이의 출산을 함께할 수 없어 마음 아팠지만 순종하면 더 큰 (6면에 계속)



▲ 기도의 삶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한 화양감리교회의 기도통장. © 복음기도신문

매년 연말에 시상식을 갖고 있어요. 기도통장은 기도한 시간을 돈으로 환산해서 헌금시간에 제출하는데요, 1등은 하루에 9시간씩 기도했고, 2등은 하루에 8시간 기도하신 분들이더군요. 100등 안에 들려면 하루에 3시간 정도 기도해야 돼요. 성경통독은 30독 정도 하신 분이 1등을 했어요.”

지 못하는 어려운 아이들에게 밥을 해주셨어요. 교회 형편도 어려웠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밥을 해주고 나면 가족 모두는 굶었어요. 그러다 부모님에게 자녀들을 키울 수 없는 한계 상황이 왔고, 제가 4살 때 한 권사님 댁으로 가게 됐어요. 극심한 가난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그때는 많이 울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 빛나는 믿음 (4)

신분에 걸맞게 새 옷을 입으라!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히 12:1~2)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게 있다면 ‘벗어버리라’는 말씀이다. 코로나로 인해 모든 것이 멈춰졌던 지난 시간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마지막 경고의 때였다는 생각이 든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자신의 영적 신분에 걸맞게 절대 혼돈되지 말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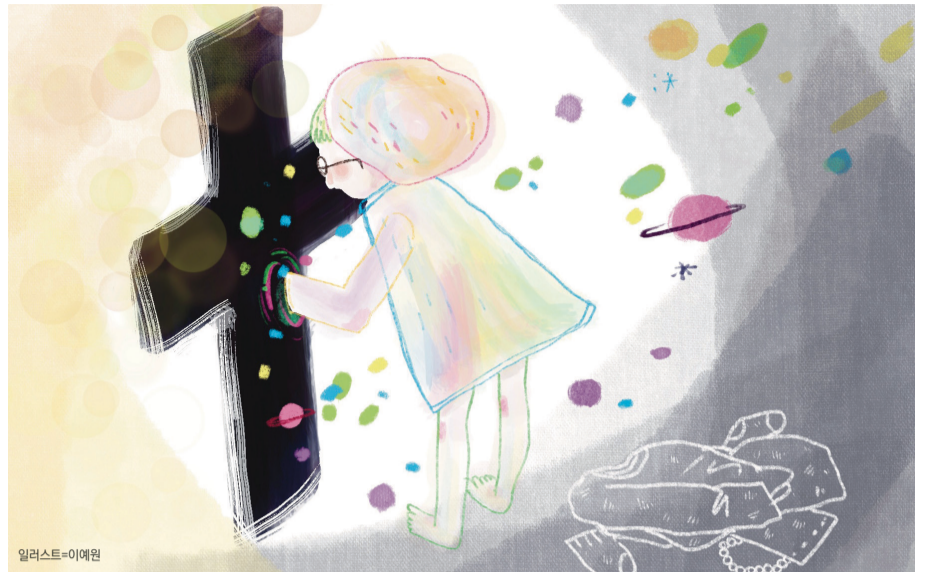
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외쳐야 한다.

우리의 영적 신분은 몇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그중 첫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는 것이다. 신부! 사랑하고 섬기며 운명을 같이할 신랑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는 순결한 신부이다. 신부로서 우리는 순결해야 하고, 잘못된 친구들을 정리해야 된다.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음란하지 않으며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순결한 신부. 그러한 신부에 걸맞게 이제는 주변 정리, 관계 정리를 해야 한다.

두 번째 영적 신분은 나그네이다. 옛날에는 돌아갈 본향이 없어서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니가 공원묘지를 찾으며 돌아다녔지만, 이제

우리에게는 죽음의 의미가 달라졌다. 이 육체의 옷을 벗어버리고 난 후에 이제는 돌아갈 본향이 생겼다. 내 집이 생겼다 이 말이다. 여기저기 허무한 마음으로 이것저것에 마음을 묻혀놓았던 것이 바로 우리였다. 그런데 자신이 곧 길 떠날 사람처럼, 여기서 하룻밤 지내고 나면 내일 떠나갈 나그네라고 생각하면 삶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고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겠는가?

세 번째로 영적 군사이다. 랄프 윈터라는 선교학자가 이런 말을 했다. ‘그리스도인들은 전시 생활방식을 취해야 된다. 우리는 여기 이 세상에 눌러 온 사람들이 아니다. 여기에 터 잡고 유람선 타러 온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일러스트=이예민

있다.’ 그렇다. 놀면서 사진 찍으러 나온 사람과 군장매고 나온 군인은 태도부터 다르다. 이렇게 그 신분에 맞게 단순하게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어둠을 토벌하고 징벌하러 가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출하는 그런 멋진 영적 군사로서 우리를 세워주셨다. 이런 복이 세상 어디에 있겠는가? 그 신분에 걸맞게 이제는

낡은 옷을 팽개쳐 버리고 의의 새 옷을 입으라 하신다. 에베소서 2장 22절에서 24절까지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벗어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꼭 기억하라.

내 삶 가운데 지금 벗어던질 것이 뭐가 있는지, 늘 미련을 남기며 아까워서 잘 쓰지도 않으면서 짐 싸 가지고 돌아다니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 내 삶에 이 영적 신분에 걸맞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지금 정리해야 된다. (2021년 1월) <계속>

[GPNEWS]

김용의 선교사
(순회선교사, LOG미션 대표)

복음기도동맹군 은혜 광고*

2022학년도 헤브론선교대학교

학생 모집

2022년 상반기에 지원 가능한 학교는 복음성경학교입니다

복음성경학교

복음성경학교(Goodnews Bible School, GBS)는 성경 전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갖게 되고 복음의 관점으로 성경을 배우는 학교입니다. 성경 안에 담아 놓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성경이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세워진 학교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6:4-5)”

모집안내

- 접수기간 : 1월 1일 - 1월 31일
- 개강일자 : 2022년 3월 7일(15주 과정)
- 모집대상 :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사랑하고 싶은 분
- 원서교부 : 아래 문의전화로 연락주시면 원서를 이메일로 발송해 드립니다.
- 문의전화 : 010.2447.4641 / 010.2772.4641

<http://www.hufm.or.kr>
헤브론선교대학교
@from_hufm

영원간병회에서 간병사를 모집합니다

영원간병회는 열방을 섬기는 마음으로 환자들을 돌보고 있는 단체로 전국에서 개인이나 단체에서 일할 간병인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장애우들도 간병인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문의 ☎ 051-271-0171, 010-7227-2560
협회장 김명숙 권사
✉ sejy22@nate.com

Interview <5면에 이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깨달아

은혜를 주심을 확실히 믿었어요. 감사하게도 지난 6년 보다 남은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역사와 선교 열매가 훨씬 컸어요. 교회가 놀라게 부흥했고, 3명의 마사이 원주민 청년이 신학교에 가게 됐고, 올레케몽 계교회를 통해 인근 마을까지 복음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렇게 7년간 아프리카 사역을 은혜 가운데 마치고 안식년을 겸해서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 더 놀라운 일이 남았나요?

“임신한 아내는 풍토병을 치료받아 완쾌됐는데 첫째 아이가 한 달이 지났는데 갑자기 호흡이 가빠지기 시작했어요. 병원으로 급히 달려갔는데, 전신 패혈증이라고 했어요. 의사는 상태가 심해지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했고, 아이 대신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도 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모진 고난을 받으실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하염없이 눈물이 났어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이 나왔어요. 반복적으로 감사 고백을 하며 눈물로 기도하고 2시간쯤 지났을까.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는 마음의 확신이 들었어요. 그날 이후 기적같이 아이는 급속도로 호전됐고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회복돼 일주일 만에 완쾌됐어요.” [GPNEWS]

C.K.

<뒷 이야기는 인터넷 복음기도신문 (gnpnews.org)에서 이어집니다.>



△ 화양감리교회 성도들과 함께, 제공: 화양감리교회

* 복음과 기도의 삶을 핵심가치로 삼고 그리스도의 군사답게 살기로 결단한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 은혜로 게재되는 광고 지면입니다.



“섬기는 자리에서 주님의 마음을 배우다”

다음세대 신앙훈련학교인 뉴스쿨을 섬기는 동안 연약한 자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

조장인 나는 핸드북에 있는 용어 설명과 말씀을 먼저 숙지하고 소그룹 시간에 매주 아이들에게 알려줘야 했다. 그러나 나는 용어 숙지도, 말씀 묵상도 제대로 하지 못해 4명의 조원 아이들에게 두서없이 나누며 버벅거리기 일쑤였다. 사탄은 “네가 그렇게 하는데, 아이들이 알아듣겠어?” “너 그때 왜 그런 말을 했어?”라며 나의 실수와 미숙함을 가지고 정죄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며 잘 하려고 열심히 준비해도 매번 실수할까봐 두려웠다. 그때 주님은 처음 시작할 때 주셨던 마음을 생각나게 하셨다. “너의 어떠함과 상관없어. 내 수준으로 일할 거야. 내 마음을 부어줄 테

니 너는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님은 먼저 내 시선이 잘 못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셨다. 나의 미숙함에도 아이들은 모두 선포되는 메



일러스트=고은선

시지를 잘 알아듣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나눴다. 주님은 아이들 모두에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주셨다. 그리고 주님은 내게 “못해도 괜찮아. 못해도 너는 내

자녀야.”라고 말씀해주시는 것 같았다.

행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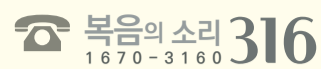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런 따뜻한 시선으로 나오

아이들을 보게 하셨다. 숙제를 하지 못해도 다그치지 않게 되었다. 잘 못해도 믿지 않았고 그 모습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래도 복음을 들으려고 그 시간에

앉아 있고 받은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그 모습이 귀하게 여겨졌다.

사탄은 계속 나의 실수와 미숙함을 정죄했지만, 주님은 “내가 할게! 기도만 해!”라고 말씀해주셨다. 훈련학교를 마치면서 한편으론 나의 부족한 것이 생각나면서 더 잘해주지 못해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그러나 주님은 동일하게 말씀해주셨다. “나는 사람이 아니야. 나의 생각은 평안이야. 지금 현재 보이는 것과 나의 생각은 다르단다. 끝까지 신뢰하여 나의 구원을 바라보거라. 끝까지 신뢰하라!” “네, 주님을 신뢰하며 계속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만을 기다리며 주님 품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주님은 신실하시고 영원한 사랑이시다.

할렐루야! [GPNEWS] 이정자



이 코너는 GPM(복음과기도미디어)이 운영하는 복음의 소리 316전화(1670-3160)의 다양한 상담사례를 요약, 소개합니다. 영혼의 목마름 가운데 마음을 나눠준 내담자들의 경험과 나눔이 동일한 어려움에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소망합니다. 귀한 통로 된 내담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편집자>

하나님이 내 일을 잘 해결해 주실까요?

Q 예수를 믿은 지 수십 년이 되었지만, 계획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아 염려와 근심 속에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한 것들에 올인해도 될까요? 하나님이 이 일을 잘 해결해 주실까요?

A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주고 앞일을 알려주는 조언자가 필요하시군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참석하고, 사역 활동하는 것이 다 같아 보여도, 그 동기는 같지 않습니다. 한 부류는 자기를 위해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이고 다른 한 부류는 하나님을 위해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전자는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우상숭배이며, 타 종교를 믿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후자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목적에 부합하는 동기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기독교가 나와 스타일이 맞아서 나를 위해 믿기로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일평생 죽음을 두려워하여 살아온 사탄의 속임 안에 있던 ‘존재적 죄인인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처리해주시는 은혜를 받고, 새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나를 위한 삶이 아니고 주를 위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당신도 우상숭배를 떠나 예수님을 성경대로 믿고 더 이상 현실의 문제로 불안해하며 전전긍긍하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된 진정한 감사와 만족을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GPNEWS]



美 국무부, 北 주민 위해 정보유입 확대

한반도에서 가장 고통받는 이웃이 살고 있는 북한의 회복을 소망하며, 북한의 현실을 소개합니다. <편집자>

미 국무부가 북한 안팎으로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증대시키기 위해 올해에도 북한 주민들이 외부 정보에 접근하고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민간단체나 우방국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국무부는 매년 대북 정보유입 등 북한에 대한 자유로운 정보 활동을 통해 인권 증진에 기여하는 단체들에 지원금을 제공하면서, 구체적으로 정보 접근권과 관련해 대북 라디오 방송 등 북한 내 근본적인 자유증진을 통해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촉진하는 분야를 지원해왔다. 또한

미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DRL)은 지난해 3월 북한의 인권과 인권유린 가해자에 대한 책임추궁, 또 정보 접근 관련 활동을 하는 단체들에 최대 300만 달러의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공고한 바 있다.

美, 북한 인권 단체에 300만 달러 보조금 지원

국무부 대변인은 최근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과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한국 내 대북 정보유입 활동이 차단된 상황에 대한 RFA의 질문에 “북한 정권이 통제하지 않고 사실에 기반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북한 내) 정보 보급은 북한 주민들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또 “북한과 관련해 우리는 북한 안팎으로 독립적인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포함해 북한 정권의 심각한 인권 침해와 학대를 강조하는 단체

들을 지원함으로써 북한 내 인권존중을 계속 촉진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대북 정보유입 활동을 벌이는 한국의 탈북단체

‘노chein’의 정광일 한국 지부장은 최근 RFA와의 통화에서 여러 제약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대북 정보유입 활동을 위해 계속 적극적으로 노

력할 것이라면서, 내년에 많은 마이크로 SD카드를 북한으로 보낼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GPNEWS]



▲ 한국순교자소리가 운영하는 유유학교 학생이 북한에 보낼 성경을 준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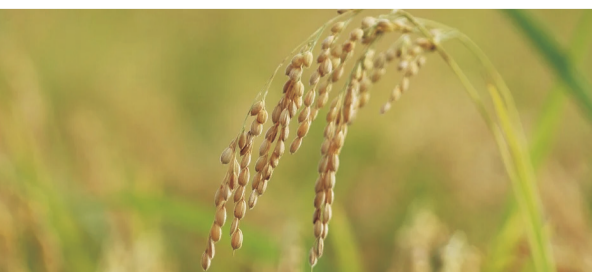
북 주민들, 알맹이 없는 김정은의 농업발전전략에 실망

북한 주민들이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전원회에서 제시된 농업발전전략이 근본적 문제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다며 실망감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RFA의 황해남도의 한 농업간부 소식통은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보고에서 밝힌 총비서의 ‘농촌발전전략과제’는 향후 10년간 단계적으로 농업생산을 증대시켜 나라의 식량문제를 완전히 해결한다는 것”이라면서 “하지만 알곡생산에서 필수적인 비료와 영농자재, 농민 사기 진작 방안 등에 대해서는 한

마디 언급이 없어 알맹이 없는 대안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협동)농장원들은 이번 농업발전전략에 영농자재 수급과 농민에 대한 알곡분배 증가 등 실질적인 대책은 빠지고 농민들의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알곡증산의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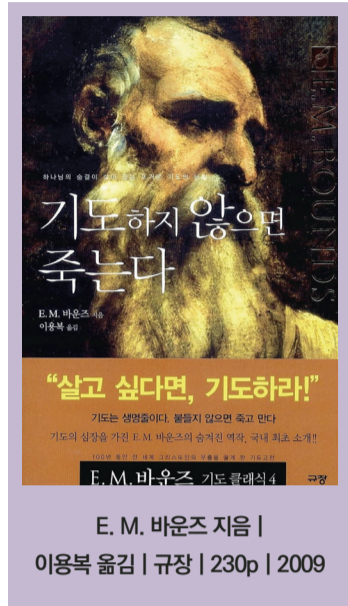
요한 과제로 내세운데 대해 실망하고 있다.”며 “농장원들의 사상 개조를 농업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는데 지금까지 농민들의 사상이 투철하지 못해 식량증산이 이뤄지지 못한 것이냐고 반문하고 있다.”고 전했다. [GPNEWS]



뷰즈 인 북스
Views in Books

E.M. 바운즈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기도로 교회는 최후 승리를 거둘 수 있다”



을 얼마나 자각하며 경계하고 있는가는 사뭇 다른 이야기다. 우리는 죽지 않으려고 또는 살기 위해서 호흡하는 것이 아니다. 생명의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호흡하며 살아가듯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겐 기도는 영적 호흡이기에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것이다.

E.M. 바운즈는 ‘기도의 사람’이며 ‘기도의 선지자’였다. 그는 언제나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7시까지 기도했고 기도하지 않고는 말씀을 보거나 설교도, 전도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늘 깨어 있는 기도

그는 기도하기 전에도, 기도할 때에도, 기도한 후에도 깨어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기도는 호흡이지만 기도가 호흡처럼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으며 간구할 수 있는 조용한 시간을 얻기 위해 하루

종일 기회를 엿보면서 기도에 깨어 있으라고 말한다.

응답을 확신하는 기도

그는 기도의 동기와 목적은 응답을 받는 것이라 한다. 응답받을 것을 믿으면서 기도했다면 응답의 확신이 느껴지는지 확인하기 위해 기도 중에도 계속 살필 것이다. 기도는 하지만 기도 응답에 관심이 없는 것은 기도하지 않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단호히 말한다.

기도의 뿌리는 강렬한 영적 소원

기도의 뿌리는 단순한 ‘필요’가 아니라 강렬한 ‘소원’이라고 말하고 있다. 소원에서 나오는 기도는 명료하고 구체적이다. 기도를 소원하 한다는 것은 영적 소원이 죽어 버렸다는 무서운 표시이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뜨거움으로 가득 차 하나님과의 교제의 장소로 달려가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소

원, 기도의 장소에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간구하도록 만들 소원에 불타기를 더욱 원하게 된다.

참된 기도

열매 맺는 참된 기도는 뜨거운 영적 갈망이며 뜨거운 기도이다. 주님은 약한 기도, 감동이 없는 기도, 차가운 기도, 그리고 중언부언의 기도를 아주 싫어하신다. 그는 기도가 아닌 기도를 드리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며, 가장 나쁜 죄는 무릎 꿇고 짓는 죄라고 말한다. 그러나 가장 효과적인 기도는 마치 하나님과 씨름하듯이 기도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과 씨름한 야곱과 같이 기도의 자리에서 끈질기게 믿음의 싸움을 싸워서 승리하게 되는 것이다.

영광의 승리를 안겨주는 골방기도

너무 바빠서 기도할 수 없다는

합리화는 결국 우리 영을 죽일 뿐이다. 은밀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는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라고 한다. 돈이 없어 가난해도, 세상의 조롱과 핍박에 시달려도 기도만 있으면 교회는 결국 최후의 승리를 거둘 수 있다. 기도는 지극히 영광스러운 승리를 교회에 안겨주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우리의 최고의 시간과 최고의 힘을 기도에 사용하는,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는 교회들을 일으키시기를 구한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느 때보다 영적 침체를 겪고 있을 이 땅의 교회들에게 이 기도의 능력이 회복되기를, 무엇보다 나에게 이 생생한 기도의 능력이 경험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어느 때든 꼭 붙들고 있어야 할 말,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GPNEWS]

정준영 선교사

☞ 지면으로 보는 인터넷 복음기도신문

평양까지 가서라도 순종할 뿐입니다!



▲ 북한 사회 모습. 출처: 모퉁이돌선교회

저의 첫 평양 방문은 정탐이 목적이었습니다. 관광팀에 끼여서 사진을 찍으며 현장을 뇌리에 새기고 사람들을 샐폈습니다. 관광 일정을 따라 평양의 봉수교회를 가고 옥류관 청빈관 등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방문에서는 좀 더 과감한 시도들을 했습니다. 뉴턴슨 성경 75권, 요마 성경 50권, 4영리 400권을 숨겨서 들어갔습니다. 라디오도 가지고 가서 남한의 극동방송을 청취했습니다. 하지만 대담한 정탐 수준이었을 뿐이지 복음을 전하지는 못했습니다. 1990년 8월 4일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하나님의 책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을 선포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두려움과 조심스러운 속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일들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목사인 저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분명하게 전하라는 것이었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저의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이후 7년을 북한 땅에 못 들어가면서 회개했습니다.

목사로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평양 방문은 1996년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물론이고 신학 서적과 설교집들을 준비해서 들어갔습니다. 성도들과의 만남은 갈 때마다 가능했습니다. 황해도 신천을 여러 번 방문했습니다. 김익두 목사의 마지막 사역지이자 반미

운동 고취가 목적인 박물관이 있는 곳입니다. 개성을 방문하면 의례 판문각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사리원을 지나면서는 개발되지 않은 모습을 눈여겨보았습니다.

평양에서 라디오를 들으며 북한에는 없는 자유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책과 비디오테이프를 가지고 가서 만나 교제하는 이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고 세상 돌아가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넘겨준 것입니다. 그들과 만날 때마다 성경 말씀들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가져간 짐 가운데에는 우리가 민통선 안에서 띄우던 복음 풍선도 있었습니다. 헬륨 가스가 없어 입으로 바람을 불어 창문 밖으로 날려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평양까지 날아오는가?’라며 수군거렸습니다. 풍선에 지문이나 침이 남지 않도록 조심해서 처리했지만 불안했습니다. 묘향산으로 일찍 가야 했기에 그 사람들 틈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저의 평양 방문은 어떻게든 말씀을 전하는 것만이 목적이었습니다. 동상이나 납 인형 앞에서 절하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기에 거부했습니다. 그런 일정에서 몇몇 사람들의 신앙적인 고백을 들었습

니다.

모퉁이돌선교회에 대한 소문 때문에 더 이상 북한 방문을 진행하지 못하게 되자 다른 일꾼들을 평양으로 들여보냈습니다. 복음 풍선을 기회 있을 때마다 남쪽에서 띄워 보냈습니다. 중국에서 북한인들을 만나 복음 전하는 사역을 활발하게 진행했습니다. 후방인 남한에서는 선교사와 기도하는 일꾼들이 늘어났습니다. 결국 저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일은 하나님이 하실 뿐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그 자리에 보내셨을 뿐이다.”

북한으로 보내진 성경을 읽고 탈북하여 모퉁이돌선교회에서 일하는 일꾼이 있습니다. 열차 밖으로 버려진 4영리를 주워 든 사람이 남한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로 4영리를 줬게 하시고 탈북하게 하시고 목사로 만드셨습니다. 그렇기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약하지만 선한 뜻을 심어 준 분이 하나님이시고 순종하고픈 마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일이 진행되도록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한 사람의 순종이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느냐 하는 것은 제가 알 수 없습니다. 그저 순종할 뿐입니다. 평양까지 가서라도. [GPNEWS]

이삭 목사(모퉁이돌선교회 대표)

구독신청 안내

구독부수는 최소 1명 이상에게 복음을 나누며 전하도록 2부, 20부, 100부 이상 신청받고 있습니다. 구독료는 받지 않습니다.

후원 안내

복음기도신문은 동역자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제작·배포되고 있습니다. 동역하실 분들은 아래 후원계좌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국민은행: 651001-01-343666 예금주: 복음과기도미디어

후원자 명단

2021. 12. 20 ~ 2022. 1. 12(가나다 순)
개인 강성민 권순호 권혜령 김경선 김동희 김명순 김사희 김선례 김신애 김애심 김영수 김유남 김정희 김형숙 김혜신 노옥순 노은옥 문용문 박경희 박민숙 박성규 박신희 송근우 신봉중 안민자 안수경 안영숙 오세주 윤정석 이강자 이상연 이영선 이영옥 이은주 이주선 이준진 이진희 장근혜 정옥영 조명숙 조형광 차익수 최근희 최정옥 홍고집 무명

교회 및 단체 강서침례교회 게르교회 고원교회 김화제일교회 꿈이루는교회 마중물감리교회 모리아선교회 목자교회 문광교회 복음기독교교회 새순교회 샘물교회 웹 시은좌교회 시흥교회 신한테크 안양그루터기교회 양덕원감리교회 열매교회 오보평감리교회 은혜선일교회 주나임교회 주만교회 참종양터교회 처음사랑교회 토론도한인침례교회 함안순복음교회 험시바교회 화양감리교회

“동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기사 제보·구독·헌금·동역 문의는 아래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070-5014-0406-8
E-mail: gnpnews@gnmedia.org (31952) 충남 서산시 운산면 원평3길 8
페이스북 www.facebook.com/gospelprayernews

발행인 겸 편집인: 김강호, 인쇄인: 장용호(주아이피디). 2010년 12월 1일 등 록번호: 충남, 다1355.(격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